

##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와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웰빙,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안 정 현   김 지 원   송 지 원   박 창 현   장 형 심<sup>†</sup>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하여 기혼여성의 웰빙과 우울을 예측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기혼여성 443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 기본심리욕구, 웰빙, 우울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427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로 웰빙에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우울에는 부적 영향을 보였다. 둘째,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매개로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웰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의 경험적 증거를 기혼여성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확인하였으며, 기혼여성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지지, 자기결정이론, 기혼여성, 웰빙, 우울

<sup>†</sup> 교신저자: 장형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성동구 17번지, E-mail: janghs@hanyang.ac.kr

작년 대비 우울을 호소하는 기혼여성은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도 조사에서 우울증 등 기분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작년 대비 21.6% 증가하였으며(남성 11.2% 증가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기혼여성의 52%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울 진료 인원은 매년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특히 30대에서 60대까지의 우울 진료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지표가 있지만, 여성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취약한 정신건강 지표는 우울이다(최성희, 2001). 기혼여성의 우울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준다. 기혼여성의 우울이 심각할수록 부부 갈등이 많아지고(송명숙, 2016), 모의 우울이 심각할수록 영아의 상호작용 반응성이 낮았으며(최민희, 이경숙, 2015), 유아의 문제 행동(송명숙, 2016),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이주연, 황미진, 2020)이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실태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RISS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KCI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를 기준으로 '기혼여성, 우울', '기혼여성, 스트레스', '기혼여성, 웰빙', '기혼여성, 정신건강', '기혼여성, 행복' 키워드를 검색하여 살펴본 결과, 아쉽게도 10년간 40여 편의 연구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그조차도 대부분 변수간의 단일 상관을 살펴보거나, 고통감내력(김은숙, 정은정, 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해 믿음

(김은하, 김혜림, 2015), 자아정체감(송은미, 이승연, 2015), 자아탄력성(최재훈, 김은혜, 2020), 영성(홍주연, 윤미, 2013), 삶에 대한 기대 및 마음챙김(이희연, 전해성, 2011) 등과 같이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보호 요인과 관련된 개인 내적 특성만을 살펴본 연구였다. 이에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심리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의 다양한 생애 경험 중 가까운 이와의 대인 관계는 특히 개인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부모-자녀, 교사-학생, 상사-부하 직원 등의 수직적 관계와 달리 연인관계, 부부관계는 수평적 애정 관계를 형성하며 이들 사이의 관계의 질은 파트너의 정신건강에 특히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Hadden, Rodriguez, Knee, & Porter, 2015). 부부간의 관계에서 배우자는 파트너의 사회적 지지, 행복, 웰빙을 증진하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스트레스, 갈등, 우울의 주된 원천이 되기도 한다.

개인에게는 문화 및 개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욕구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기본심리욕구로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Deci & Ryan, 1980, Ryan & Deci, 2017).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개인은 웰빙과 성장을 경험하고(Sheldon & Niemiec, 2006), 좌절될 때 우울증 등 부정적 결과를 경험한다(Ryan, Bernstein, & Brown, 2010; Chen et al., 2015).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자기결정이론이다.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내에서 개인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개인 역시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환경이 개인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할수록 개인의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고, 좌절시키는 환경에

서는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촉진된다 (Ryan & Deci, 2008). 또한 개인 역시도 자신이 지각하는 환경을 더 지지적이며, 좌절감을 덜 주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김아영 등, 2018). 선행연구는 관계 내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높은 수준의 관계성 만족과 관계에 대한 헌신도를 높이고 갈등의 소지를 낮춘다고 보고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개인의 기본심리욕구는 심리적 웰빙과 관계의 질에 근간이 되는 욕구로서 기능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심리기제를 자기결정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 웰빙, 우울이 어떤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며, 기혼여성의 웰빙과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배우자의 태도는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다(정유림, 정성화, 한삼성, 2018; 정문주, 홍영희, 2018).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자율성을 지지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촉진하는 맥락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통제함으로써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여 배우자의 태도가 기혼여성의 내적 심리기제인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웰빙을 예측하고,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 불안 등 부정적 결과로 예측한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기혼여성의 높은 우울 호소를 고려했을 때,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내적 보호기제를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는 더욱 필요하

다. 특히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좌절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면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자기 통제를 상실하게 되고, 경직된 행동 방식을 갖으며, 적대적인 반항 행동과 같은 부정적 보상 행동이 강화된다(Vansteenkiste & Ryan, 2013).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이를 보완하고자 부적절한 보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이론의 세부 핵심이론인 기본심리욕구이론에 따르면, 앞서 기술했듯이 인간은 생득적으로 성장에 필수적인 기본심리욕구를 지닌다(Ryan & Deci, 2000). 기본심리욕구는 생물학적 결핍을 보완하려는 허기, 갈증과 같은 반응적인 생리적 욕구와는 다르다.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개의 능동적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Deci & Ryan, 198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성은 자기 결정감, 자기 의지 등을 의미하고, 유능성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효율감 등을 의미하며, 관계성은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감, 깊은 친밀감 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이때, 자율성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기결정이론에서의 자율성은 독립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자발성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자율성이 높은 기혼여성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존을 선택할 수 있다. 자율성의 반대 개념인 통제, 압력, 강요를 떠올리면 행동의 원인이 개인의 관심과 가치로 인한 것인지, 혹은 외부 압력과 통제에 의해 행동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자

율성 욕구 만족이나 좌절의 경험 여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Ryan & Deci, 2000).

Chen 등(2015)에 따르면,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서로 독립된 개념이다. 그 이유는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단순히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은 연속되는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서로 다른 결과를 예측하는 독립적인 심리 경험이다(Chen et al.,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성 좌절은 특정 활동을 수행할 때 강요되는 느낌, 압박감, 압력에 의해 통제되는 느낌을 의미하며, 유능성 좌절은 실패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관계성 좌절은 소외감, 배척감을 경험을 의미한다(Ryan & Deci, 201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웰빙을 예측했으며(Bartholomew, Ntoumanis, Ryan, Bosch, & Thogersen-Ntoumani, 2011),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Bartholomew et al., 2011), 정서적 소진(Vansteenkiste, Niemiec, & Soenens, 2020; Van den Broeck, Vansteenkiste, De Witte, & Lens, 2008), 질병(Bartholomew, et al., 2011)을 포함한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였다.

부족하기는 하나 부부관계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역할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관계 내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안정적인 애착과 정서적 신뢰는 더욱 향상되고(Ryan & Deci, 2017),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높을수록 성관계 시 성관계에 대한 편안함, 만족감 등 긍정적 결과를 보고하였다(Smith, 2007). 하지만 아쉽게도 부부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을 구분하여 동시에 하나의 구조적 모델에 포함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지를 함께 확인한 통합적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 자율성 지지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란 타인의 자율성 욕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eci & Ryan, 1987). 관계 내에서의 자율성 지지는 파트너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통제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고, 파트너의 선택과 가치를 신뢰하며 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Ryan & Deci, 2000). 관계 내에서의 자율성 지지는 중요한데, 자율성 지지는 가족(Lerner & Grolnick, 2019), 학교(Cheon et al., 2019), 직장(Gillet, Gagné, Sauvagère, & Fouquereau, 2013) 등 여러 영역에서 개인의 삶을 더욱 만족스럽고, 성장시키는 예측 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자율성 지지가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에게 자율성 지지를 받을수록 무조건적 애정을 느끼고(knee, Canevello, Bush, & Cook, 2008),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고(Blais, Sabourin, Boucher & Vallerand, 1990), 배우자를 더욱 친밀하게 느끼며(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활력이 향상되고(Legate, Ryan, & Weinstein, 2012), 우울감이 감소한 연구(Patrick et al., 2007)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병을 앓는 상황에서도 배우자에게 자율성을 지지받을 때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배우자의 자율성을 지지받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통증을 덜 호소하였다(Kindt et al., 2015). Weinstein과 Legate, Kumashiro, Ryan(2016)이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확장기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2년간의 종단연구를 한 결과,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혈압 수준의 변화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를 받았던 경험을 기억할 때는 갈등

전후의 혈압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웰빙과 우울

일부 학자들은 웰빙을 행복과 동일시 하기도 한다(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 Stone, 2006). 하지만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시하는 웰빙은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만족감만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Ryan & Huta, 2009).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시하는 웰빙은 주관적 요소 그 이상의 '번영과 최적의 발전'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번영은 활력, 건강한 의식, 진정한 자기(self)를 향한 움직임으로 특징되며, 최적의 발전은 자신의 내적 욕구와 상태에 접촉하고,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17). 웰빙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기능하고자 하고, 삶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Ryff, 1989). 즉, 진정한 웰빙은 상황에 대해 진솔하게 경험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에 도달하는 상태라고 제시한다(Ryan, Deci, & Vansteenkiste, 2016).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웰빙을 연구할 때, 자기결정이론의 웰빙 개념을 잘 반영하는 측정 도구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단일차원의 웰빙이 아니라 번영, 최적의 성장, 만족감, 활력 등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정신적 웰빙 척도(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를 측정도구로 선정하였다. 정신적 웰빙척도는 정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의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삶의 만족감,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감, 삶의 의미와 방

향, 성장에 대해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기결정이론의 웰빙 개념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은 다양한 병인과 내적 역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증상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의존성 우울증의 경우, 주요 타인에 대한 의존과 분리될 때 경험하는 상실과 위협감으로 인해 우울 증상이 나타나며, 주로 무력감, 버림받는 감정, 낙담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초자아로 인하여 엄격한 자기비판이 우울 증상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Ryan & Deci,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엄격한 통제를 할 때, 자기비판을 매개로 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Boone, Vansteenkiste, & Soenens, 2018). 이처럼 중요 타인이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지나친 압력과 통제를 할 경우, 개인은 과도한 자기비판을 하게 되고, 무능감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결정이론에서의 우울의 주요 특징은 실패했다고 느끼는 패배감, 낮은 자존감, 부정적 자기평가, 스스로에 대한 가치 없음과 같은 인지적 요인과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다.

####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자율성 지지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다른 기본심리욕구 보다 자율성 욕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자율성 지지는 세 개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과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는 등의 자율성을 지지 받는 경험을 할 때, 유능성과 관계성은 자연



스럽게 충족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충족시키고, 유능감에 대한 욕구를 활성화시키며, 관계에서의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Kasser & Ryan, 1999; Ryan, 1991; Ryan, 1995; Ryan & Deci, 2008; Ryan & Deci, 2017). 이와는 역으로 통제나 무시 하에 자율성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친밀감이나 보살핌을 받는 관계성 욕구의 충족은 어렵다. 자율성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유능성의 발현 또한 쉽지 않다.

타인의 자율성 지지가 개인의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를 촉진하였으며(Griffith & Grilnick, 2014), 교사의 자율성 지지 역시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만족를 촉진하였고(Lavigne, Vallerand, & Miquelon, 2007; Standage & Gillison, 2007), 친구의 자율성 지지 역시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만족를 촉진하는 것(Deci, Guardia, Moller, Scheiner, & Ryan, 2006; Deci & Ryan, 20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영역에서도 코치의 자율성 지지를 많을수록 훈련받는 선수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Adie, Duda, & Ntoumanis, 2008).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추론하면,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높이고 좌절을 낮출 것으로 예측된다.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의 두 가지 경로, 웰빙과 우울

최근 기본심리욕구의 ‘이중 프로세스 모델(Dual Process)’을 살펴보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Chen et al., 2015; Jang, Kim, & Reeve,

2016; Cheon et al., 201; Jang, Reeve, Cheon, & Song, 2020). 이중 프로세스 모델은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독립된 변인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변인이 예측하는 바를 확인한다. 이중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웰빙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였다(Chen et al., 2015; Jang, Kim, & Reeve, 2016).

Bradshaw 등(2021)의 연구에서는 5개의 국가(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인도, 필리핀)와 특정 집단(소수민족, 성소수자, 정치집단, 종교집단)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국가 및 집단 차이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삶의 만족감, 활력, 긍정 정서를 촉진하고,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 불안,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Chen 등(2015)의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삶의 만족감, 활력은 정적 예측을 보였지만, 우울 증상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될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고 삶의 만족감은 낮아지지만, 활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웰빙을 높이고,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

Uysal과 Ascigil, Turunc(2017)의 연구에서 자

기결정이론을 토대로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로 만성통증을 가진 기혼여성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통증 강도와는 무관하게 만성 통증을 경험하는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고, 만족된 기본심리욕구는 웰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신병리 증상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집게도 위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근골격계 만성통증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일반 기혼여성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둘째,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은 서로 독립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Chen et al., 2015), 연구 모형에서 기본심리욕구 좌절 변인을 구분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경로분석으로 실시하여 각 변수들의 측정 오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삶의 만족감(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로젠버그의 자기존중감 척도(Rosenberg, 1965)를 사용함으로써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시한 웰빙의 변영, 성장의 의미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매개로 우울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를 예측변인으로, 기본심리욕구 만족,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매개변인으로, 웰빙과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령, 결혼 기간, 자녀 수, 경제 형태가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경신, 2021; 박성희, 이정은, 2021)를 바탕으로 연령, 결혼 기간, 자녀 수, 경제 형태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완전매개분석을 할 때, 주요 변수와 관련있는 기타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감소시키고, 결과의 타당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외변인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하다(김용남, 양혜원, 2021).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구조적 가설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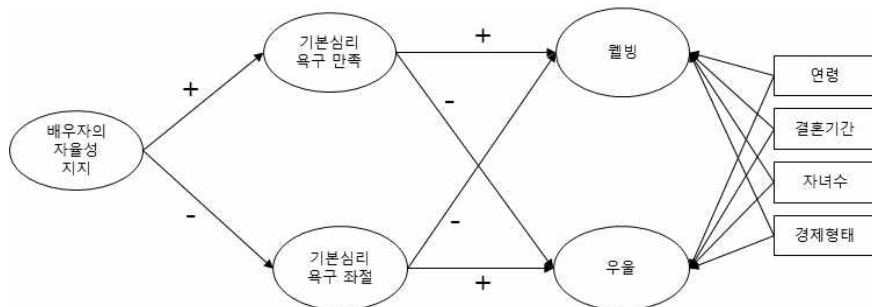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가설 1-2.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연구문제 2.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는 기혼여성의 웰빙과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웰빙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2-2.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우울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2-3.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웰빙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2-4.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연구문제 3.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는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와 기혼여성의 웰빙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설 3-1.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혼여성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혼여성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3-4.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인터넷 홍보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기혼여성 443명이 설문 참여하였다. 기혼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설문 참여를 제한하였고,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설문은 2021년 1월에 실시 및 수집 완료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 참가자 전원에게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였다. 데이터 클리닝 단계에서 이상치 16개의 데이터를 제거하고, 총 427

표 1. 인구학적 특성(n=427)

	구분	n(%)
연령	20대	16명(3.7%)
	30대	193명(45.2%)
	40대	205명(48.0%)
	50대	11명(2.6%)
	60대	2명(0.5%)
결혼 기간	5년 미만	112명(26.2%)
	5년-10년	151명(35.4%)
	10년-15년	121명(28.3%)
	15년-20년	28명(6.6%)
	20년 이상	15명(3.5%)
자녀 수	자녀 없음	41명(9.6%)
	1명	180명(42.2%)
	2명	176명(41.2%)
	3명 이상	30명(7.0%)
경제활동 형태	모두 경제활동	220명(51.5%)
	남편만 경제활동	201명(47.1%)
	아내만 경제활동	3명(0.7%)
	모두 안 함	1명(0.2%)



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도구

##### 자율성 지지 척도

Williams와 Deci(1996)가 개발한 학습풍토질문지(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중 유지원(2011)이 타당화한 자율성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춰 '교수님'을 '배우자'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와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내적 구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남편에게 이해받는다'고 느낀다', '남편은 가정에서 나에게 선택권을 준다' 등이다. 원척도와 같이 7점 척도에서 평정토록 했으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게서 자율성 지지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유지원(2011)의 연구와 동일하게 단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73.148%의 설명량을 보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6으로 나타났다.

##### 기본심리욕구 척도

Sheldon과 Hilpert (2012)가 개인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alanced Measure of Psychological Needs(BMPN)를 Jang과 Kim, Reeve(2016)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 가정 맥락에서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욕구 만족과 좌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는'이라는 어간을

모든 문항에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내 의지와 상관 없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등이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에서 평정토록 하였다. 기본심리욕구 만족 요인 점수는 각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율성 만족, 유능성 만족, 관계성 만족의 총 9개 문항의 합산 점수이다. 기본심리욕구 좌절 요인 점수는 각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율성 좌절, 유능성 좌절, 관계성 좌절의 총 9개 문항의 합산 점수이다. 기본심리욕구 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다고 하여 좌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심리욕구 좌절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기본심리욕구의 좌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다고 하여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54로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 좌절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90으로 나타났다.

##### 정신적 웰빙 척도

임영진, 고영진, 신희천, 조용래(2012)가 정신적 웰빙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Robitschek & Keyes, 2009)을 타당화한 정신적 웰빙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정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의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웰빙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만족감을 느낀다', 사회적 웰빙 문항의 예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심리적 웰빙의 문항 예는 '내 삶이 방향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낀다' 등이다.

다,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경험들을 했다고 느낀다'이다. 6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7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임영진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9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33을 보였다.

#### CEES-D 우울 척도

Radloff(1977)가 개발한 척도를 전점구, 최상진(2001)이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 척도를 사용했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자들은 각 문항의 내용을 읽고 자신의 느낌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R)',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R)' 등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하는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점구와 최상진(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8이었다.

#### 자료분석

연구 변인(배우자의 자율성 지지, 기본심리욕구 만족, 기본심리욕구 좌절, 웰빙, 우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을 채택하여 측정모형 및 연구모형 검증을 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실시하였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잠재변인이 반영하는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확

인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를 알아보았다. 셋째,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수가 95%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시점에서의 설문조사로 인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우려로 동일방법편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에서는 연령, 결혼 기간, 자녀 수, 경제 형태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만족, 기본심리욕구 좌절, 웰빙,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이 때,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덤변수를 활용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 2000회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6.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Finch와 West(1997)은 왜도 2, 첨도 7의 절대값을 넘을 때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들의 왜도 범위는 절대값 .185부터 1.080, 첨도 범위는 절대값 .005부터 1.241로 정상분포의 가정을 만족시켰다. 자율성 지지의 평균은 32.439였으며,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평균은 33.241,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19.981, 웰빙의 평균은 44.56, 우울의 평균은 16.569로 나타났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n=427)

	M	SD	왜도	첨도
자율성 지지	32.439	7.194	1.080	1.241
기본심리욕구 만족	33.241	6.168	.591	.422
기본심리욕구 좌절	19.981	7.373	.584	.288
웰빙	44.56	12.418	.383	.106
우울	16.569	11.039	.667	.344
연령	3.47	.57	-.498	-.731
결혼 기간	2.26	1.03	.608	-.005
자녀 수	1.47	0.788	.185	.203
경제 형태	1.49	0.528	.41	-.525

다. 통제변인을 연령대(20대=2, 30대=3, 40대=4, 50대 이상=5), 결혼 기간(5년 미만=1, 10년 미만=2, 15년 미만=3, 20년 미만=4, 20년 초과=5), 자녀 수, 경제형태(맞벌이=1, 남편만 경제활동 중=2, 아내만 경제활동 중=3, 모두 경제 활동 안 함=4)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연령대의 평균은 3.47, 결혼 기간은 2.26, 자녀 수는 1.24, 경제 형태의 평균은 1.49로 맞벌이는 51.5%, 남편만 경제활동은 47.1%를 보였다.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본심리욕구 만족( $r=.644, p<.01$ ), 기본심리욕구 좌절( $r=-.536, p<.01$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웰빙( $r=.657, p<.01$ ), 우울( $r=-.594, p<.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웰빙( $r=-.426, p<.01$ ), 우울( $r=.613, p<.01$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때 단일차원이 가정되는 잠재변인의 경우, 문항 꾸러미(item parcelling)로 묶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으로 확인된 ‘자율성 지지(6문항)’ 잠재변인에 대해 문항 꾸러미를 이용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제작 방법은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제안된 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모든 꾸러미의 부하량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동일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그리고 다른 잠재변인인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 웰빙, 우울의 경우에는 해당 척도 원 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하위 요인을 참고하여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와 같이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beta$  값은 .48~.92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df=51)$  값은 308.285 ( $p<.001$ )로 나타났으나,  $\chi^2$  값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 복잡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도 확인하였다(Bollen et al., 1993). 그 결과, TLI=.917, NFI=.922, CFI=.938, RM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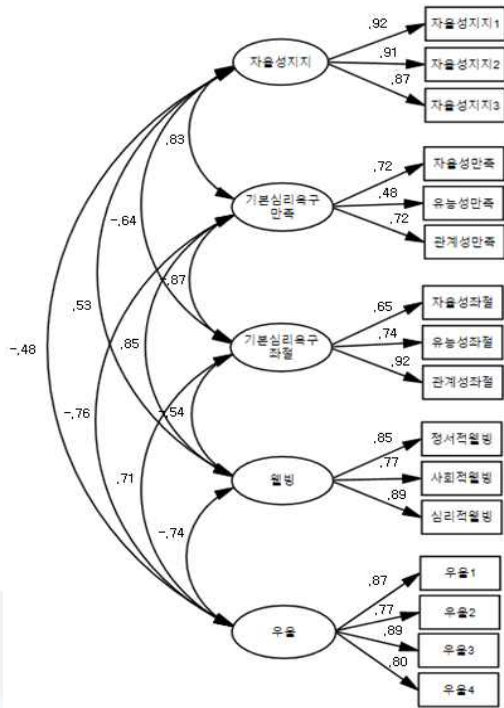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090, SRMR=.057, AGFI=.908로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여 측정변인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를 알아보았다. 개념신뢰도는 .7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은 .50 이상일 경우 수렴타당

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6). 표 3에서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기에 본 모형은 수렴타당도가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가 95%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상관계수의 95% 신뢰구간이 1 또는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판별타당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배병렬, 2014). 표 4에서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은 -1 또는 1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판별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는 한 시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제이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되는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된다. Pavlou와 Liang, Xue(2007)에 따르면,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90 이하로 나타나야 한다. 표 4를 보면 잠재변인간 최대 상관계수는 .865로 모든 잠재변인간 상관계수가 .90 미만으로 나타나서 기준값에 부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수렴타당도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CR	AVE	Cronbach's α
자율성 지지	.895	.739	.875
기본심리욕구 만족	.793	.569	.824
기본심리욕구 좌절	.802	.579	.849
웰빙	.863	.678	.821
우울	.906	.832	.868

표 4.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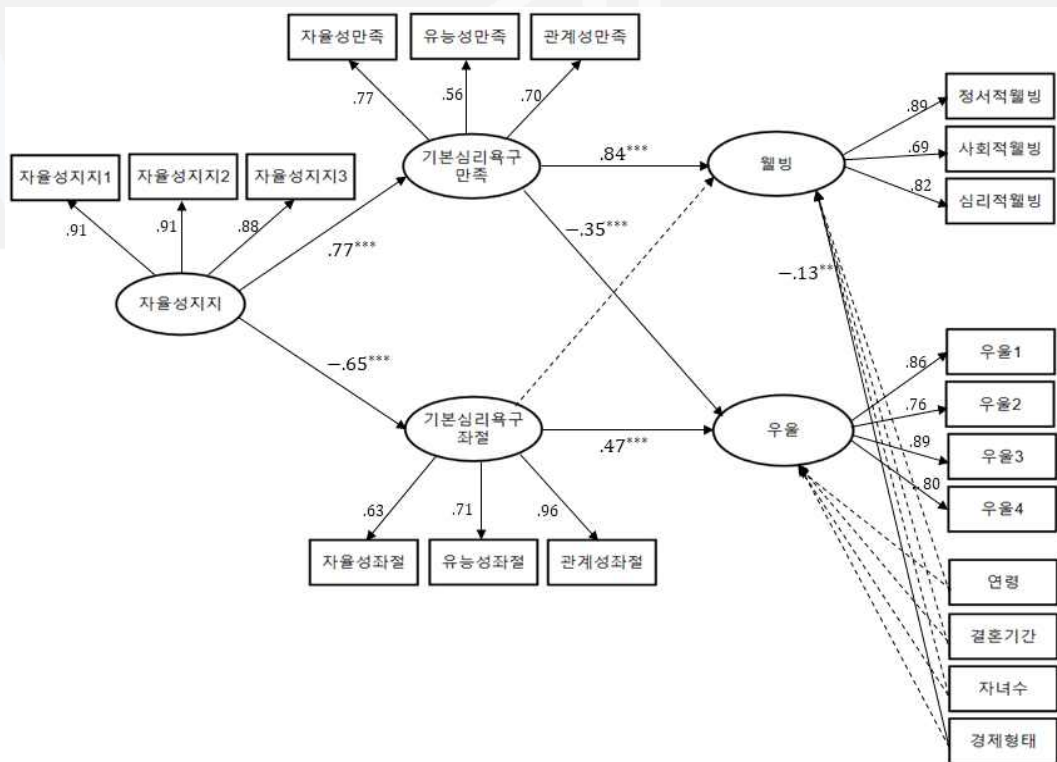
	1	2	3	4	5
1. 자율성 지지	-	(.716~.952)	(-.736~-540)	(.410~.650)	(-.549~-411)
2. 기본심리욕구 만족	.834	-	(-.939~-791)	(.757~.945)	(-.811~-705)
3. 기본심리욕구 좌절	-.638	-.865	-	(-.609~-463)	(.657~.755)
4. 웰빙	.530	.851	-.536	-	(-.804~-678)
5. 우울	-.480	-.758	.706	-.741	-

주. 대각선 아래: 상관계수, 대각선 위: 상관계수의 95% 신뢰구간

연구모형 검증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만족, 기본심리욕구 좌절, 웰빙, 우울을 포함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잠재변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표 5에 경로계수를 상세히 보고하였다.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정적 영향



주. 기본심리욕구 만족  $R^2=.59$ , 기본심리욕구 좌절  $R^2=.42$ , 웰빙  $R^2=.75$ , 우울  $R^2=.51$

그림 3.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만족, 기본심리욕구 좌절, 웰빙, 우울간의 구조적 관계

표 5.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p
자율성 지지 → 기본심리욕구 만족	.769	.483	.033	.000
자율성 지지 → 기본심리욕구 좌절	-.645	-.518	.035	.000
기본심리욕구 만족 → 웰빙	.838	1.078	.083	.000
기본심리욕구 만족 → 우울	-.352	-.256	.004	.000
기본심리욕구 좌절 → 웰빙	-.027	-.027	.048	.565
기본심리욕구 좌절 → 우울	.462	.263	.031	.000
통제변수 투입 결과				
연령 → 웰빙	.025	.036	.070	.612
연령 → 우울	-.039	-.032	.040	.446
결혼 기간 → 웰빙	-.077	-.068	.046	.140
결혼 기간 → 우울	-.021	-.011	.026	.745
자녀 수 → 웰빙	.043	.050	.047	.294
자녀 수 → 우울	-.058	-.038	.027	.159
경제 형태 → 웰빙	-.125	-.217	.064	.000
경제 형태 → 우울	.039	.038	.037	.298

을 미치고( $\beta=.769, p<.001$ ), 기본심리욕구 좌절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45, p<.001$ ). 이에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는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부적적으로 예측할 것이다'는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웰빙에는 정적 영향( $\beta=.838, p<.001$ )을, 우울에는 부적 영향( $\beta=-.352,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eta=.462, p<.001$ ), 웰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beta=-.027, p>.05$ ). 이에 가설 2-1, 2-2, 2-4는 모두 지지 되었지만, '기혼

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웰빙을 부적적으로 예측할 것이다'는 가설 2-3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 중 경제 형태만 기혼여성의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5, p<.001$ ).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df=149)$ 값은 649.310 ( $p<.001$ )로 나타났으나,  $\chi^2$ 값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 복잡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도 확인하였다(Bollen et al., 1993). 그 결과, 표 6과 같이 CFI=.909, RMSEA=.089, SRMR=.079로 확인되어 기준치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LI=.884, NFI=.886, AGFI=.816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2$	df	TLI	NFI	CFI	RMSEA	SRMR	AGFI
측정모형 수치	649.310 ( $p < .001$ )	149	.884	.886	.909	.089	.079	.816

매개효과 분석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와 웰빙, 우울과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매개변인이 2 개 이상이면 매개변인 각각의 매개효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 변수를 생성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하여 웰빙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555, p < .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178, p < .01$ )와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104, p < .01$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매개하여 웰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3-1, 3-2, 3-4는 지지되었으며,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혼여성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매개한다’는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와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웰빙, 우울의 구조를 살펴보고,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구분하여 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가정 내에서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높았으며, 자율성 지지를 경험하지 않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높아졌다. 이는

표 7.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effect	95% CI		p
		LLCI	ULCI	
자율성지지→기본심리욕구만족→웰빙	.555**	0.45	.686	.001
자율성지지→기본심리욕구만족→우울	-.178**	-.235	-.124	.001
자율성지지→기본심리욕구좌절→웰빙	-.070	-.159	.002	.062
자율성지지→기본심리욕구좌절→우울	-.104**	-.161	-.052	.001

\*\*  $p < .01$

가정 내에서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 또는 좌절시키는 조건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성 지지는 상대방의 자율성 욕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남편이 아내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아내의 참조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에서의 자율성 지지는 대화를 통해 주로 표현되며, 대화 과정에서 배우자의 생각, 느낌, 행동에 관해 묻고, 반응을 반기고, 지지함으로써 자율성 지지를 경험한다(김아영 등, 2018). 따라서 이와 같은 남편의 자율성 지지 태도를 경험할 때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높아지며,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단일차원의 부재가 아니기에 욕구 만족과 욕구 좌절의 경험을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이차원적인 관점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와 기혼여성의 웰빙과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로 웰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Vierling, Standage, & Treasure, 2007; Standage & Gillison, 2007; Deci et al., 2006, Deci & Ryan, 201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남편의 자율성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며, 만족된 기본심리욕구는 기혼여성의 웰빙을 촉진하고, 우울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남편의 자율성 지지를 적게 경험할수록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촉진하며,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될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될수록 경직된 행동 패턴이 발달하고, 감정

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의 요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Ryan & Deci, 2000; Vansteenkiste, Ryan, & Soenens, 2020).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될수록 가정 내에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행동 패턴 대신 한 가지 역할만을 고집하거나, 남편, 자녀 혹은 그 가정의 문화에서 기대하는 바와 상반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면 무력감, 동기 상실을 경험하기도 한다(Vansteenkiste, Ryan, & Soenens, 2020). 따라서 가정 내에서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경험하는 기혼여성은 원만한 부부관계나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싶은 의욕 대신 무력감, 동기 상실을 경험하며 이는 우울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지만, 웰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웰빙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Chen 등(2015)의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우울 증상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삶의 만족감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활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웰빙은 삶의 만족감, 자기존중감, 성장, 활력 등을 반영한 통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감만 반영한 Chen 등(2015)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과 번영의 의미를 내포하는 웰빙을 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기혼여성의 웰빙과 우울에 대해 연령, 결혼 기간, 자녀 수, 경제 형태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본 구조적 모형에서는 경제 형태만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혹은 남편만 경제활동을 하고 아

내는 주부로 있는 경우에 따라 기혼여성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직업 유무가 웰빙에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는 기혼여성의 웰빙을 향상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자원임을 시사한다. Reeve(2009)는 자율성 지지 행동에 대하여 '정보적 언어 사용 및 설명적 근거 제공, 공감적 경청, 비통제적 언어 사용, 내적 동기 자원 촉진, 인내심 갖고 기다리기, 상대방의 부정적 정서 표현 수용' 등과 같은 자율성 지지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율성 지지 원형 모델(Aelterman et al., 2019)에서는 자율성 지지는 참여하고, 조율하는 태도로 구성되며, 반대 개념으로 통제적 태도를 제시하였다. 통제적 태도는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고, 통제하고, 요구하는 태도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율성 지지 태도를 배우자에게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촉진하고, 촉진된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웰빙을 향상하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 자율성 지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자율성을 지지받는 사람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배우자 또한 자율성 지지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내적 준거를 이해하고, 공감을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주도적인 표현과 행동을 촉진하여 자신의 자율성과 유능성이 충족된다는 점이다 (Deci & Ryan, 2014). 이는 자의적으로 배우자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율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결정이론의 가설에 대한 추가적인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웰빙을 예측하

며,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부정적 결과(ill-being)로 예측한다. 현재까지 여러 영역(Van Tuin, Schaufeli, & Van Rhenen, 2020; Bradshaw et al., 2021; Chen et al., 2015)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역할이 확인되었지만,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기혼여성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입증함으로써 자기결정이론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심리치료 및 교육적 개입을 개발하기 위한 미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연구 모델에 따르면 기본심리욕구는 웰빙의 74.5%를 설명했으며, 우울의 50.7%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혼여성의 웰빙을 개선하고 우울을 감소하는데 있어 기본심리욕구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국내 기혼여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세 군데에 본 연구를 안내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해당 온라인 카페는 특정 주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국내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이 쉽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수집 대상이 온라인 카페 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으로 제한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측정모형 검증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대한 유능성 만족의 요인부하량 표준화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능성 만족 문항을 살펴보면, '(집에서 나는) 어려운 일을 해낼 때 성취감을 느낀다, (집에서 나는)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도 잘 해낸다' 등이다. 육아, 가사 등과 같은 가정에서의 다양한 업

무에 대해 난이도를 평가하거나, 가정 내 업무를 성취함으로써 경험하는 가정에서의 유능성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 같은 결과가 기혼여성이 가정에서 기본심리욕구 중 상대적으로 유능성을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gamma=.865$ ). Chen 등 (2015)에 따르면,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모두 기본심리욕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기혼여성에 초점을 맞춰 남편의 자율성 지지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부부관계에서의 기혼여성의 자율성 지지 역할을 간과하였다. 현재까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자율성 지지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부부 상호 간의 자율성 지지를 함께 살펴봤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 시사점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와 기혼여성의 내적 심리기제인 기본심리욕구, 웰빙,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기본심리욕구의 역할을 확인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혼여성의 웰빙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혼여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이라는 매개변인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혼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부치료 및 교육 등의 효과적인 임상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경향과 경험률 비교 보고서. HIRA 정책동향 9권 3호. 76-85.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2899621>에서 검색.
- 김경신 (2021). 한국과 중국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비교연구: 개인 및 가족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3), 33-56.
- 김아영, 도승이, 신태섭, 이우결, 이은주, 장형심 공역 (2018). 동기와 정서의 이해. 박학사.
- 김용남, 양혜원 (2021). 완전매개 결과의 타당성과 통제변인의 활용. 교육평가연구, 34(4), 679-705.
- 김은숙, 정은정 (2019). 중년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4), 638-650.
-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화병간의 관계: 내외통제성을 통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6(5), 39-53.
- 박성희, 이정은 (2021). 소득계층별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삶의 만족도 차이. 인문사회 21, 12(3), 2121-2136.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청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  
<https://www.workingmom.or.kr/>에서 검색.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송명숙 (2016).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8(4), 39-57.
- 송은미, 이승연 (2015). 중산층 중년 기혼여성의 건강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531-549.
- 우종필 (2016).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 유지원 (2011).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 심리적 중재 요인, 사회적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주연, 황미진 (2020). 모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통해 자녀의 외화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1(5), 339-356.
- 이희연, 전혜성 (2011). 중년기여성의 삶의 기대,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275-284.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전경구, 최상진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문주, 홍영희 (2018). 기혼자녀를 둔 중년기 전업주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와 자녀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313-334.
- 정유림, 정상화, 한삼성 (2018). 기혼여성의 남편 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263-271.
- 최민희, 이경숙 (2015). 부모의 우울여부에 따른 12~15개월 부모-영아 간 상호작용 특성 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8(1), 1-28.
- 최성희 (2001). 기혼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재훈, 김은혜 (2020). 기혼여성의 생활 스트레스와 생활 만족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진흥연구*, 5(4), 63-72.
- 홍주연, 윤미 (2013). 중년여성의 영성이 행복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219-242.
- Adie, J. W., Duda, J. L., & Ntoumanis, N. (2008). Autonomy support, basic need satisfaction and the optimal functioning of adult male and female sport participants: A test of basic needs theory. *Motivation and Emotion*, 32(3), 189-199.
- Aelterman, N., Vansteenkiste, M., Haerens, L., Soenens, B., Fontaine, J. R. J., & Reeve, J. (2019). Toward an integrative and fine-grained insight in motivating and demotivating teaching styles: The merits of a circumplex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1(3), 497-52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rtholomew, K. J., Ntoumanis, N., Ryan, R. M., Bosch, J. A., & Thøgersen-Ntoumani, C. (2011).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diminished function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and psychological need thwar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11), 1459-1473.
- Blais, M. R., Sabourin, S., Boucher, C., & Vallerand, R. J. (1990).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couple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21-1031.
- Bollen, K. A., & Long, J. 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Publications
- Bradshaw, E. L., DeHaan, C. R., Parker, P. D., Curren, R., Duineveld, J. J., Domenico, S. I., & Ryan, R. M. (2021). The perceived conditions for living well: Positive perceptions of primary goods linked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ell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 Campbell, R., Boone, L., Vansteenkiste, M., & Soenens, B. (2018). Psychological need frustration as a transdiagnostic process in associations of self-critical perfectionism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eating path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4(10), 1775-1790.
- Chen, B., Vansteenkiste, M., Beyers, W., Boone, L., Deci, E. L., Van der Kaap-Deeder, J., Duriez, B., Lens, W., Matos, L., Mouratidis, A., Ryan, R. M., Sheldon, K. M., Soenens, B., Van Petegem, S., & Verstuyf, J. (2015).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need frustration, and need strength across four cultures. *Motivation and Emotion*, 39(2), 216-236.
- Cheon, S., Reeve, J., Lee, Y., Ntoumanis, N., Gillet, N., Kim, B., & Song, Y. (2019). Expanding autonomy psychological need states from two (satisfaction, frustration) to three (dissatisfaction): A classroom-based intervention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1(4), 685-702.
- Deci, E. L., La Guardia, J. G., Moller, A. C., Scheiner, M. J., & Ryan, R. M. (2006). On the Benefits of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utonomy Support: Mutuality in Close Friend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313-327.
- Deci, E. L., & Ryan, R. M. (1980). Self-determination theory: When mind mediates behavior.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1(1), 33-43.
- Deci, E. L., & Ryan, R. M. (1987). The support of autonomy and the control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024-1037.
- Deci, E. L., & Ryan, R. M. (2014). Autonomy and need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Relationships motivation theory. In N. Weinstein (Ed.), *Human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53-7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 71-75.
- Gillet, N., Gagné, M., Sauvagère, S., & Fouquereau, E. (2013). The role of supervisor autonomy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and autonomous and controlled motivation in predicting employees'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2*(4), 450-460.
- Griffith, S. F., & Grolnick, W. S. (2014). Parenting in Caribbean families: A look at parental control, structure, and autonomy support.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0*(2), 166-190.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 Hadden, B. W., Rodriguez, L. M., Knee, C. R., & Porter, B. (2015). Relationship autonomy and support provis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Motivation and Emotion, 39*(3), 359-373.
- Jang, H., Kim, E., & Reeve, J. (2016). Why students become more engaged or more disengaged during the semester: A self-determination theory dual-process model. *Learning and Instruction, 43*, 27-38.
- Jang, H., Reeve, J., Cheon, S., & Song, Y. (2020). Dual processes to explain longitudinal gains in physical education students'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Need satisfaction from autonomy support and need frustration from interpersonal control.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9*(3), 471-487.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Schwarz, N., & Stone, A. A. (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1*(5782), 1908-1910.
- Kasser, V. G., & Ryan, R. M. (1999).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needs for autonomy and relatedness to vitality, well-being, and mortality in a nursing ho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5), 935-954.
- Kindt, S., Vansteenkiste, M., Loeys, T., Cano, A., Lauwerier, E., Verhofstadt, L. L., & Goubert, L. (2015). When is helping your partner with chronic pain a burden? The relation between helping motivation and personal and relational functioning. *Pain Medicine, 16*(9), 1732-1744.
- Knee, C. R., Canevello, A., Bush, A. L., & Cook, A. (2008). Relationship-contingent self-esteem and the ups and downs of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608-627.
- Lavigne, G. L., Vallerand, R. J., & Miquelon, P. (2007). A motivational model of persistence in science and educat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2*(3), 351-369.
- Legate, N., Ryan, R. M., & Weinstein, N. (2012). Is coming out always a "good thing"? exploring the relations of autonomy support, outness, and wellness for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2), 145-152.
- Lerner, R. E., & Grolnick, W. S. (2019). M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The roles of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children's affect. *Motivation and Emotion volume, 44*, 373-388.

-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34-457.
- Pavlou, P. A., Liang, H., & Xue, Y. (2007).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uncertainty in online exchange relationships: A principal-agent perspective. *MIS Quarterly, 31*(1), 105-136.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eve, J. (2009). Why Teachers Adopt a Controlling Motivating Style toward Students and How They Can Become More Autonomy Suppor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44*(3), 159-175.
- Robitschek, C., & Keyes, C. L. M. (2009). Keyes's model of mental health with personal growth initiative as a parsimonious predic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321-329.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Database record]. APA PsycTests.
- Ryan, R. M. (1991). *The nature of the self in autonomy and relatedness*. Springer-Verlag.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 397-427.
- Ryan, R. M., Bernstein, J., & Brown, K. W. (2010). Weekends, work and well-being: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s and day of the week effects on mood, vitality and physical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1), 95-122.
- Ryan, R. M., & Deci, E. L. (2000). The darker and brighter sides of human existe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a unifying concept. *Psychological Inquiry, 11*(4), 319-338.
- Ryan, R. M., & Deci, E. L. (2008). From ego-depletion to vitality concerning the facilitation of energy available to the sel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2), 702-717.
-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The Guilford Press.
- Ryan, R. M., Deci, E. L., & Vansteenkiste, M. (2016). Autonomy and autonomy disturbances in self-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Research on motivation, attachment, and clinical proces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Theory and method, 32*, 385-438.
- Ryan, R. M., & Huta, V. (2009). Wellness as healthy functioning or wellness as happiness: The importance of eudaimonic think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3), 202 - 204.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heldon, K. M., & Hilpert, J. C. (2012). The Balanced Measure of Psychological Needs (BMPN) scale: An alternative domain general measure of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Emotion, 36*(4), 439 - 451.
- Sheldon, K. M., & Niemiec, C. P. (2006).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2), 331-341.
- Smith, C. V. (2007). In pursuit of 'good' sex: Self-determination and the sexual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1), 69-85.
- Standage, M., & Gillison, F. (2007). Students' motivational responses toward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their relationship to general self-esteem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5), 704-721.
- Uysal, A., Ascigil, E., & Turunc, G. (2017). Spousal autonomy support, need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individuals with chronic pai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0*(2), 281-292.
- Van den Broeck, A., Vansteenkiste, M., De Witte, H., & Lens, W. (2008).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burnout, and engagement: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Work & Stress, 22*(3), 277-294.
- Van Petegem, S., Soenens, B., Vansteenkiste, M., & Beyers, W. (2015). Rebels with a cause? Adolescent def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reactance theory and self determination theory. *Child Development, 86*(3), 903-918.
- Van Tuin, L., Schaufeli, W. B., & Van Rhenen, W. (2020). The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engaging leadership.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14*(2), 6-23.
- Vansteenkiste, M., & Ryan, R. M. (2013). On psychological growth and vulner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as a unifying principle.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3*(3), 263-280.
- Vansteenkiste, M., Ryan, R. M., & Soenens, B. (2020). Basic psychological need theory: advancements, critical themes, and future directions. *Motivation and emotion, 44*(1), 1-31.
- Vierling, K. K., Standage, M., & Treasure, D. C. (2007). Predicting attitudes and physical activity in an "at-risk" minority youth sample: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5), 795-817.
- Weinstein, N., Legate, N., Kumashiro, M., & Ryan, R. M. (2016). Autonomy support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Long term effects and conflict navig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Motivation and Emotion, 40*(2), 212-225.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 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67-779.

1차원고접수 : 2022. 11. 07.

심사통과접수 : 2022. 05. 30.

최종원고접수 : 2022. 06. 30.

##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pousal Autonomy Support, Well-being, Depress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Married Women

Jeonghyun An Jiwon Kim Jiwon Song Changhyun Park Hyungshim Jang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pousal autonomy support and the well-being and the depression, mediated by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married wome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Married women(N = 443)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on autonomy support, basic psychological needs,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data of 427 was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pousal autonomy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married women's well-being, mediated by the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a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pousal autonomy support negatively affects depression, mediated by the frustra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frustra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married women had a positive effect with depression,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well-being.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empirical evidence of self-determination theory has been extended to the domain of married women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sychotherapy intervention of married women.

*Key words* :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support, self-determination theory, married women, well-being, depression